

# 구례군 귀농귀촌인 26% 다시 도시로

### '소득 부족 생활고'가 주원인 최근 7년간 836명 도시 재이주 영구 정착 위한 대책 마련 시급



귀농귀촌사관학교로 널리 알려진 구례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귀농귀촌의 일변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구례군에서 최근 7년간 귀농귀촌인 중 26%가 다시 도시로 떠나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구례군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간 구례군으로 귀농귀촌한 인구는 2266세대 3168명으로 구례군 전체인구인 2만5175명의 12.6%에 달했지만, 이들중 26%에 해당하는 598세대 836명이 역으로 다시 도시로 돌아간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결과는 군이 그동안 귀농귀촌인을 위한 귀농사관학교인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운영 체계적인 교육과 영농 전문기술을 전수해 조기에 정착할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보금자리사업과 구례 살아가기 체험 프로그램 등을 실시해 유입인구를 늘린 것과는 상반된 결과다. 군은 지난달 30일에는 전남도로부터 귀농귀촌사업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들 재이주자들은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이유에 대해 농촌에서의 소득부족과 영농기반 부족, 주

거 미확보, 병원과 문화시설 부족 순으로 답변했다.

특히 '소득 부족으로 생활을 영위 할수가 없어 다시 도시로 돌아간다'는 이유가 46%를 차지하고 있어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로 떠났던 1960-1970년대의 농촌인구 감소 현상이 귀농귀촌인들에게서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구례군은 지난 7년간 귀농귀촌인들에게 58억 8200여만원을 보조 또는 융자로 지원했으며, 다시 도시로 돌아간 재이주자들에게는 지원했던 비용 중 3억3300만원을 회수했다.

이에 따라 다시 돌아가는 귀농귀촌인구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미비한 지원책 등을 보

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귀농귀촌인들의 재이주자가 갈수록 늘고 이주자들이 소득부족과 영농기반 부족, 주거 미확보, 병원과 문화시설 부족 등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구례군 관계자는 "신규택지 조성과 농촌 주택정비사업 등을 통해 귀농귀촌인들의 정주 여건을 만들어 나가고 영농기반 구축과 복지지원 사업을 펼치는 등 인구 유입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 “새해 향일암 일출 온라인으로 보세요”

### 비대면 온라인 '향일암일출제'

일출 명소인 전남 여수시 향일암에서 새해 첫날 일출을 볼 수 없게 됐다.

여수시는 제26회 여수향일암일출제는 비대면 온라인 개최로 축소 진행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일출객의 방문을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1월1일까지 돌산읍 향일암 일출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26회 여수향일암일출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전면 축소됐다.

축제는 개막행사인 공연과 소원등 점등, 제야의 종 타종과 일출행사인 일출라이브, 신년덕담 영상 등으로 마련됐으며, 모든 행사는 유튜브

등 온라인으로 증계된다.

비대면 프로그램인 소원지 작성, 신년덕담영상은 사전 공모로 이뤄지며, 행사 당일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되는 행은 열쇠고리만들기, 소원 캘리그라피, 소원 읽어주기 등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여수시는 해돋이를 보기 위해 시민과 관광객이 몰릴 것에 대비해 이달 31일 자정부터 새해 첫날인 다음날 오전 8시까지 향일암으로 가는 차량을 전면 통제할 방침이다.

여수 향일암은 우리나라 4대 관음 기도처 중 하나다. 이곳에서 기도하면 소원이 이뤄진다고 전해져 불교신자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이 찾는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 고흥군, 하늘공원 조성 국비 13억 확보 '탄력'

### 고흥읍 호형리에 2023년 준공 봉안당·자연장지 등 들어서

고흥군이 추진하는 하늘공원 조성 사업이 예산 확보로 탄력을 받았다.

고흥군은 '고흥군립 하늘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 봉안당과 자연장지 사업비로 국비 1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고흥군립 하늘공원은 친환경적 장사시설로 지난해 10월 부지선정 공고를 통해 고흥읍 호형리 일원

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했다. 이후 공원 조성을 위한 사전행정 절차를 진행해 2023년 12월 준공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늘공원의 전체 면적은 18만7373㎡로 봉안당, 봉안당, 자연장지, 주차장, 관리사무소 등이 들어서 예정이며, 웰스톱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해주는 공원기능도 병행토록 하는 새로운 개념의 장사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다.

하늘공원 조성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장사시설에 대한 사업

요구가 많아 신규시설은 전면 배제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송기군 고흥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국회 여야 예결위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 국회심의의 막바지에 증액사업으로 13억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값진 수확을 얻어낼 수 있었다.

고흥군 관계자는 "내년 예산으로 확보된 국비를 바탕으로 사업을 본격 추진해 2023년 하반기부터는 군민들이 자연장 시설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고흥=주각중 기자 gjiu@kwangju.co.kr

## 광양경제청, 경제자유구역 평가 'S등급' 달성

### 2차전지 산업 생태계 조성 인정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GFEZ)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하는 '2021년 전국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달성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매년 전국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전년도 사업 전반의 실적 및 금년도 투자유치 전략, 혁신 인프라 조성 계획 등을 1차 서면 평가,

2차 현장 실사를 통해 평가한 뒤 S, A, B 등급을 차등 부여하고 있다.

광양경제청은 이번 평가에서 전기차, ESS 등 미래 전략산업의 핵심인 2차전지 소재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광양만권의 특화 경쟁력으로 인정받았다고 분석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현재 포스코케미칼, 포스코HY클린메탈, 포스코리튬솔루션과 같은 2

차전지 소재산업 앵커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활발한 가운데 연관 기업 투자 유치에도 성공해 국내 최대의 2차전지 소재산업 공급기지로 조성중에 있다.

송상락 광양경제청장은 "광양만권의 주력산업에 안주하지 않고,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과 산업 생태계 변화에 발맞춰 저탄소 신성장 산업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자유로운 기업활동 보장과 혁신생태계 활성화로 'New GFEZ'로의 도약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곡성, 의료시설 없는 지역에 '임시예방접종센터'

### 8개 면에 30일까지 운영

곡성군이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위탁의료기관 없는 지역에 임시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한다.

(사진)

곡성군은 위탁의료기관이 없는 8개 면 지역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한 임시예방접종센터를 설치해 17일부터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11개 읍면으로 이루어져 있는 곡성군은 곡성읍과 옥과면, 석곡면에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이 있다. 나머지 8개 면에는 위탁의료기관이 없어 주민들은

백신 접종을 위해 인근 읍면을 방문해야 했다.

이에 따라 곡성군은 고령층 1만742여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추가접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오곡면, 삼기면, 목사동면, 죽곡면, 고달면, 입면, 결면, 오산면 8개 면에 임시예방접종센터를 설치했다.

고령자들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수 있어 의료원 내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또 마을별 전세버스를 지원할 계획이며 읍면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백신 접종 사후관리를 할 방침이다.

/곡성=박동태 기자 pit@kwangju.co.kr

## 보성 벌교꼬막(주) 서홍석 대표 이웃돕기 앞장

지역의 대표기업으로 나눔 문화에 앞장서고 있는 벌교꼬막(주)이 보성군의 대표 특산물인 꼬막을 가공해 만든 꼬막만두(640개)와 꼬막볶음밥(400개)을 기탁했다. 벌교읍행정복지센터는 기증 받은 상품을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복지시설 및 저소득계층 이웃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서홍석 벌교꼬막 대표는 "이윤보다 품질을 먼저 생각하는 정직한 기업을 이념으로 지역의 특산물을 국민 안심 먹거리로 정착 시키는데 앞장설 것"이며 "지역에서 번 돈 지역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환원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 전기차 환경부 무상보조 실시 중!

전기종 - 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장착(10년 사용), 가정용220V로 충전, 원동기 면허로 운전



**2인승  
오토바이  
핸들방식**  
최대속도 50km  
주행거리 100km

**에코EV102**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833만원	303만원	48만원	482만원



**적재중량  
200kg**  
최대속도 47km  
주행거리 90km

**나이스3L (캐노피 1만원)**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650만원	330만원	48만원	272만원



**안전필수  
전복방지(틸팅)  
기능**  
최대속도 60km  
주행거리 50km

**나이스1L**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본인부담금
462만원	330만원	132만원

**emart 이마트 광주점(광주터미널점) 전시 중!**

친환경전기차 전라남도 대표 생산기업!

**DAEPOONG**

본사-공장 : 전남 영광군 대마면 전기차로 133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내)

상담 문의

**061) 352-3010 (내선2번)**  
**061) 872-8880, 1**

고흥지사 010-2548-7111  
나주대리점 010-3626-3848  
장성대리점 010-2819-3546  
전남 동부권역 010-2450-1954

광양대리점 010-5355-1292  
함평대리점 010-2602-6051  
광주·영광 010-3925-2181  
전남 서부권역 010-3647-9709

전국대리점 / 취급점 문의

**010-2034-0141**